



매연을 싫어하는 두루미



김 정 만
(남서울대공원 진료과장)

철새란 철따라 이동하는 새를 말하며 번식지와 월동지(겨울을 나는 곳) 사이를 일년에 한번씩 왕복하며 살아가는 습성을 지닌 새를 일컫는다.

오리와 기러기는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가을철에 우리나라에 건너와 겨울철을 지낸 뒤 봄이 오면 되돌아 가기 때문에 겨울철새라 한다. 도요새와 물떼새 역시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멀리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여행하는 새(나그네 새)라는 이름을 얻고 있다.

피꼬리를 위시한 많은 작은 새들은 여름철에는 우리나라에서 번식하고 가을에 남쪽으로 내려 갔다가 봄에 다시 돌아와 여름철새라고 불리워 진다.

이처럼 일년내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새들은 1백 11종류에 이르고 우리나라 텃새인 50종류를 합쳐 1백61종류에 달하는 새들이 일년동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새들이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202호로 지정된 두루미는 겨울철새로 소련 시베리아 칸카호반과 만주 동북부(해

일릉강)에서 번식한 후 11월하순경부터 다음해 3월 까지 우리나라에 머문다.

두루미는 보통 3~10마리에서 120~150마리 까지 무리지어 다니며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조차 마음대로 넘나들며 농경지나 늪지 혹은 갯가에서 떨어진 벼나 잡초씨앗, 풀뿌리, 미꾸라지, 다슬기, 지렁이등을 긴부리로 찾아내 잡아먹고 산다.

두루미는 일반 다른 조류에 비해 농약, 덩, 산탄과 엽총따위로 유난히 많은 수난을 겪어 민가가 없고 사냥꾼이나 총소리가 없는 38분계선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나 판문점주변, 강화도 해안가, 장단과 철원평야 등을 중심으로 겨울을 난다. 두루미가 이 지역으로 모이는 현상은 두루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두루미는 후각, 시각, 청각순으로 감각이 발달해 우선 농사짓는다고 피워놓은 모닥불이나 민가에서 밥 짓는 연기, 엽총의 화약냄새 등을 보통 3~6km 떨어진 곳에서도 귀신같이 알아챈다.

두루미는 바람결에 냄새를 감지하고 사람들이 가

가이 접근해 오는 것을 사전에 알고 하늘 높이 비상한 후 공중 정찰하듯 선회하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종적을 감춰버리는 것이다.

특히 두루미는 연기에 대해서 민감해 자연발화로 산에서 연기와 불꽃이 일어나면 1~2km 떨어진 곳에서도 이를 알아내 바람불어오는 쪽으로 추적하여 산불 연기는 가능한한 피하면서 불속에서 살려고 뛰어 나오는 각종 곤충, 벌레들로 포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나 들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면 산림간수들은 망원경을 통해서나 발화지점 가까이 접근하여 원인을 분석하는데 두루미때의 움직임을 참고하게 된다. 두루미들이 산에서 불꽃이나 연기가 치솟는 주위를 하늘 높이 날으면 사람들이 버린 담배불등이 바람타고 번진 산불이라고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두루미는 사냥꾼의 냄새와 농부의 냄새, 군인들의 냄새등을 정확히 판별하며 특히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산에서 피우는 냄새와 자연발화된 산불의 냄새를 영락없이 구별한다. 특히 사람들의 냄새가 함유된 매연을 가장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를 피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으로 정확한 판단의 자료를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이나 들에서 불이 한번 났던 곳이라도 냄새가 없어도 곧 다시 찾아가는 두루미지만 인간의 기계문명에 의한 매연공해가 끊이지 않는 곳에는 다시 찾아드는 법이 결코 없다.

원래 우리 민족은 두루미를 아끼고 사랑해왔다. 백의민족이라 일컬어지는 한국인의 의상가운데 여성의 빨간 땀, 흰저고리, 검정치마차림은 두루미의 생김새를 모방한듯 흡사하다.

그뿐이랴, 옛부터 강호의 선비나 풍류객들은 오곡을 추수하고 한가로운 초겨울이 다가오면 사랑채에 자리잡고 시를 짓고 시조를 읊조렸으며 술이라도 곁들여 흥이 나면 두루미 날개짓 따라 춤도 출줄 아는 여유를 즐겼던 것이다.

아침 저녁 해가 뜨고 질 무렵에 두루미 한쌍이 짝을 지어 울며 나르는 모습을 춤으로 옮겨 가꿔온 것이 바로 한국 민속춤 가운데 학춤의 원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도 고전무용을 전공하는 사람들중에는 이른 아침 대공원 큰물새 우리앞에 숨어서 두루미의 동작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게된다.

해뜨는 시각에 두루미 한쌍이 의종게 화답하며 날아오르는 모습은 우리춤이 과연 두루미의 동작을 본뜬 것이구나하고 느낄 만큼 우아하다.

새들이 잠을 자는 방법은 천태만상이다. 배를 땅이나 나무에 대고 머리는 등속에 파묻고 자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이다. 그 외에는 한다리로 서서 자기, 두다리로 서서 자기, 목을 움츠린 채 자기, 물위에 뜬 채 자기, 공중을 날면서 자기 등이 있다.

등에다 머리를 파묻는 것이나 다리를 웅크리는 것은 모두 피부노출부분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다만 얇은 물 속, 진흙 못, 얼음위 등에서는 웅크릴 수가 없으므로 한쪽 다리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한쪽 다리를 깃털속에 묻게돼 두다리로 서는 것보다 체열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때 몸을 받치고 있는 발목에는 일종의 열교환장치가 있어서 발끝에서 냉각되어 돌아온 정맥피는 여기서 체내로부터 나온 더운 동맥피의 열을 받아 따뜻하게 더워진 다음 체내로 돌아간다.

그리고 열을 방출한 동맥피는 냉각되어 발끝으로 간다. 그러므로 이들이 서있는 얼음에 구멍이 뚫린 다던지 반대로 발가락에 동상이 생기거나 얼음에 발이 얼어붙는 일이 없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한쪽 다리로 서서 목을 등속에 파묻고 잠을 자도 넘어지거나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류가 인간에 비해 뛰어난 평형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한 남획을 자행한 결과 자연의 균형이 파괴되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동물들을 멸종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산불의 발생을 알려줄 뿐 아니라 자연발화인지 인공발화인지를 알려주는 두루미때와 같은 철새와 여러가지 텃새들을 우리는 자연 그대로 보호하고 보존해줌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